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월례토론회

●「優良株式」이 공급 안되는 이유」등 논의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회장 邊衡尹) 月例토론회=6월 24일 여의도63빌딩. (사진) 「전환기의 경제와 증권시장」(윤계섭·서울대) 「자본시장육성안」(서영택·재무부) 발표. (자료집 B5 38면)

윤계섭교수는 한국의 증권시장을 진단하면서 優良株式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로 1) 他人자본 조달비용이 자기자본 조달비용보다 저렴하다. 2)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3) 소유

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기업공개가 부진한 점을 꼽았다. 또 수요측면에서는 투자환경의 불안, 기업공시제도의 미비, 큰손의 횡포, 증권금융제도의 낙후상 등이 證市의 발전을 저해해왔다고 분석한다. 또 그는 한국의 증권시장이 配分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장이 불완전경쟁 상태일 경우, 期待收益이 높은 기업에 지원이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자원배분에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것.

● 각국의 미술사 비교연구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제1회 학술대회=6월 13일 성신여대. 「한국의 미술사 교육」(문명대·동국대) 「미국의 미술사 교육」(김영나·덕성여대) 「독일의 미술사 교육」(권영필·영남대) 「프랑스의 미술사 교육」(임영방·서울대) 발표. (자료집 B5 140면)

● 「중산층의 혁신지향 높아져」

'87전기 사회학대회=6월 26일 충북대. 「한국 중산층개념과 성격구명」(한상진·서울대) 「폭력의 사회학적 고찰」(배동인·강원대) 「過소비의 사회학적 진단」(김문조·고려대) 「전통사회와 권위주의」(이근무·아주대) 「집멜론」(김희·연세대) 「지역주의가 한국사회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차중천·충남대) 「한국과 대만의 공업유형 비교」(강희경·충북대) 「在美韓人노년층의 주관적 복지」(박재홍·경성대) 「자원·가치가 남성의 家族內 역할변화에 미치는 영향」(안병철·한양대) 「미국인의 생활만족도」(강승연·현대사회연구소) 「사회연결망 이론」(김용학·연세대)

사회통계자료·전국표본조사를 토대로 한 한상진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은 객관적 및 주관적인 측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 모델이든 혼합모델에 따르면 중산층은 80년에서 85년

까지 5~8% 증가했으며 객관적 기반이 결여된 주관적 중산층도 17.9%에서 22.3%로 늘어났다. 또 중산층의 정치적 지향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일관된 비판의식을 나타냈다고. 반면 중산층화될수록 보수성과 혁신성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특히 勞使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구중간계급에게서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 지방행정 電算化 방안논의

행정학회 학술대회=6월 29~30일 朝鮮大. 「지방행정구조의 발전적 개선방향」(최준원·조선대) 「행정이론의 규범성과 행정이념의 범주」(김종술·전남대) 「지방행정電算化의 확산적용方案」(김길조·중앙대)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도시관리행정」(박우서·연세대) 「정보사회의 행정역할과 과제」(鄭弘翼·서울대) 발표. (자료집 B5 총102면)

● 해방이후사에 관한 다각적 논의

東亞日報 현대사심포지엄=6월 29~30일 프레스센터. 「해방후 남북연·현대사회연구소」 「사회연결망이론」(김용학·연세대) 「사통계자료·전국표본조사를 토대로 한 한상진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은 객관적 및 주관적인 측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 모델이든 혼합모델에 따르면 중산층은 80년에서 85년

총 114면)

김인회교수는 「國大案과동」에 대해 「미군정당국의 한국에 대한 無知와 준비 부족, 親日의 태도와 언어장벽, 그 반응으로 나타난 한국인들의 美軍政불신이 미군정당국으로 하여금 제도교육의 관료주의적 통제를 강행하게끔 유혹했다」고 분석했다. 미군정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교육은 제도적으로는 미국식 學制와 이념을 모방해 왔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났으며,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國大案에 의해 끝내 탄생을 본 국립서울대학교는 이후 官學중심의 학벌주의·관료주의를 강화하는 항구적인 관료지망생 생산기기로 기능해 왔다는 것이 요지.

● 민사상태의 한국住宅文化를 분석

峨山사회복지사업재단 창립10주년기념 심포지엄=7월 2~3일 프레스센터. 복지사회의 이념·교육개혁·법률구조·住宅문제·농촌개발·문화복지·의료보장·환경문제·생활보호사업·산업복지와 고용·障者복지·시설사업과 민간참여등 12分科의 발표및 토론이 있었다. (자료집 B5 총 486면)

● 수학교육의 새 방법론 토의



대한수학회 심포지엄

대한수학회 심포지엄=7월 5일 梨大 김영의홀. (사진) 「제5차 교육과정」(국승길·문교부) 「최근 미국 수학교육의 동향」(한태식·육군사관학교) 「수학과 정의적 영역평가의 이론과 실제」(최성달·동해시교육청)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성효석·한국교육개발원) 「문제해결학습의 이론과 실제」(신현성·배중수) 「수학의 기초개념 및 기초기능의 지도 방법」(박근덕·경포여중) (자료집 B5 138면)

한태식교수는 스푸트니크충격에

강홍빈 住公주택연구소장은 「住宅문제」分科 주제발표에서 「유수한 건축가들의 작품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住居文化가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근본원인을 「집을 쓰고 사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왜소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흥부자」의 내면적 빈약상과 아울러 주택문화의 기본단위인 家族이 자율적 존재라기보다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지는 수동적 존재에 머물러 있다는 것. 권태준교수(서울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公營開發」방식에 대해 「취득과 개발에는 공권력과 공기업을 동원하는 반면 분배·處分에 기업적 收支를 맞추는 방식」이라 파악한다. 그는 이것이 자급자족의 경영을 함으로써 제도적 마찰과 정부의 재정출연을 줄이는 잇점은 있으나 분배면에서 늘어나는 공급비용으로 인해 값싼 주택·宅地 확보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 우려했다. 토지자원의 부족을 감안할 때 배분적 逆進효과가 가중돼 限界土地만이 한계소득계층에 배분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 지역의료체계의 전망

의료체계연구회 제1회 학술토론회=7월6일 서울대病院연구소. 주제발표 신영수·김용익. (자료 B5 18면)

발표자는 86년 세계보건총회에 의해 Health for All의 새 전략으로 채택된 District Health System Based on Primary Health Care(1차의료보호에 기초한 지역의료체계)의 개념을 특히 조직구조 부문에 중점을 두어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조직체계의 개편試案을 제시했다. 기존의 보건의료체계 개편試案들은 「의료의 사회화」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체제적 배경과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추구라는 현실적 요청 사이에서 가치체계의 갈등을 빚어왔다. 그 절충적 해결이 보건책에서는 「정부지원의 강화와 공공규제의 합리화로써 보건의료의 공익화를 기한다」는 명제로 표현되어 있는데 발표자들은 「민간주도」의 제약속에서 「지역의료체계」의 실현성을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그것의 낙관적 측면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능성, 보건소의 독립성 확보, 의료보험조합의 지역조직화 전망등이고 부정적 요인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윤곽 불투명, 기구간 연계 결여, 人力·재정 부족등을 꼽고 있다.

